

광주 남구 푸른길공원 노점상 갈등 심화

지자체 “쓰레기·냄새 등 불편 민원 지속돼 단속 강화” 상인회 “노점상은 서민들의 생계...대화로 문제 해결”

광주 남구 푸른길공원 산책로 노점상 운영을 놓고 지자체와 상인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남구와 푸른길토요시장상인회에 따르면 남구가 푸른길공원 산책로 중간지점에 차신규제봉을 설치하던 중 상인들의 반대로 다시 철거했다.

남구는 이날 오전 푸른길공원 산책로 폭 2.5m 중간지점에 차신규제봉을 30m 길이에 설치했다. “산책로 좌우 통행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남구는 주장했지만 상인회는 “노점상 운영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풍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구와 상인회는 차신규제봉을 놓고 수시간 이상 대치했으며 소통 창구를 마련해 대화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한 뒤 마무리했다. 남구와 상인회의 갈등은 10여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폐선 부지를 활용한 푸른길공원이 광주 남광주시장부터 동성고 입구까지 4.7km구간에 조성된 이후 산책로 한편에 노점상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다. 산발적으로 설치된 노점상은 50

여개로 늘었고 8년 전부터는 남구 진월동 한 제과점 뒤편으로 모였다. 푸른길토요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상인들은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이용해 산책로에 생선, 잡화 등 각종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했다. 인근 주택가와 산책에 나선 주민들은 냄새, 쓰레기, 통행 불편 등의 민원을 남구에 제기했다. 남구는 주민불편과 공원 내에 노점상을 운영할 수 없는 규정 등에 의거 차신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효과가 없자 남구는 이달

들어 단속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상인회는 강하게 저항했다. 또 상인 1명이 쓰러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치된 차신규제봉에 대해서도 상인회는 “남구가 지난 15일 남구청정의 현장 방문과 다른 지역 노점 운영 실태 조사 뒤 상인회 대표단과 대화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산책로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어 처음에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모 축소’ 등을 요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인이 늘었다”며 “상인회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뉴욕 지하철서 30대 男 70대 여성 폭행

뉴욕 지하철 안에서 한 30대 남성이 7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미국 사회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승객들이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동영상 촬영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버즈피드뉴스 등에 따르면 폭행은 지난 10일 오전 3시에 브록스를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발생했다. 검은색 모자와 가죽 재킷 차림의 건장한 남성이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얼굴과 복부 등을 발로 마구 걷어차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영상은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1200만건 이상 조회됐다. 영상에는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이들은 동영상만 찍고 소리를 질렀을 뿐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폭행범 뿐만 아니라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래퍼 겸 배우 아이시스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비겁자 같은 짓”이라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촬영을 한 모든 사람들은 겁쟁이들이다. 이 빌어먹을 녀석을 걷어차서 때려눕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행범은 경찰에 체포됐다. 뉴욕 경찰(NYPD)은 23일 오전 폭행을 일으킨 마크 고베스(36)를 로어 맨해튼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베스는 피해자인 78세 여성의 얼굴과 몸을 반복해서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이날 오후 기소됐다. 경찰은 범인이 폭행 직후 도주했으며 피해 여성은 얼굴 등에 출혈이 있어 다음 정류장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소말리아 정부청사에 무장괴한 난입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정부 청사 건물에 23일(현지시간) 이슬람 무장조직 대원들이 난입해 노동사회부 차관을 비롯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를 포함한 일부 정부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 앞에서 자동차 폭탄이 터지더니, 곧 무장한 괴한들이 청사 안으로 난입했다. 괴한들은 최소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번 사건으로 사가르 이브라힘 압달라 노동 및 사회부 노동사회부 차관이 사망하는 등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보안군 측은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사망자 수를 15명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조직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사이클론 ‘이다’ 사망자 700명 넘어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로 인한 사망자가 700 명이 넘어섰다. BBC 등은 사이클론 이다로 큰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와 짐바브웨, 말라위 등에서 사망자 수가 총 73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모잠비크에서는 항구 도시의 베이리가 홍수로 물에 잠기면서 사망자 수가 417명을 기록했다. 이 곳에서는 롤레리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나라 짐바브웨에서는 259명, 말라위에서는 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러시아 관광객, 발리서 오랑우탄 밀반출 적발

러시아 관광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기 오랑우탄을 밀반출하려다가 공항 당국이 적발됐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러시아 관광객 안드레이 제스트코프(27)가 전날 저녁 귀국하기 위해 발리 덴파사르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지나다가 공항 직원에 적발돼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안요원들은 그의 수화물에서 잡지는 2살짜리 수컷 오랑우탄을 발견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랑우탄에서 약을 먹여서 2~3시간 잠들게 했다. 발리 자연보호기관 관계자는 “발견 당시 오랑우탄은 알레르기약을 먹고 잠든 것으로 보였다”면서 “기방 안에서 알레르기약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청, 점멸신호 기준 강화...7시간-5시간

경찰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점멸신호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점멸신호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점멸신호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외국 기준 및 사례 분석 등 연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점멸 신호는 심야시간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해 현재 전국 2만여개소(전체 신호 중 41%)에서 운영 중이다. 황새 접벌은 주의 진행, 적색 접벌은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반 교통사고 사망 비율(1.9%)보다 점멸 신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비율(3.1%)이 더 높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차로수 ▲속도 ▲교통사고 건수 ▲교통량 ▲운영 시간 등 모든 면에서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점멸신호를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에만 적용하고, 교통사고 건수도 연간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 도로로 조정했다. 기존에 시간당 교통량 600대 이하 도로에 적용하던 길 400대 미만으로 낮췄다. 운영 시간 또한 오후 11시~오전 6시에서 자정~오전 5시로 줄였다.

뉴스



부산 온천천 봄나들이 24일 부산 동래구 온천천을 찾은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민 “5·18 왜곡 처벌법 제정·전두환 처벌”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과 전두환 처벌을 촉구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전남시국회의는 23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시·도민대회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대회는 부대행사 처벌법 제정 촉구 입장문 낭독, 자유발언, 공연, 법 제정 관련 정당 발언,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엔 시민과 각계 각층 인사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두환은 5·18 열령 앞에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반납하라” “방인 의원 3인 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5·18 왜곡·혐오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등의 구

호를 수없이 외쳤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발의한 5·18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이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가 신속처리 안건(페스트트랙)으로 왜곡 처벌법을 지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과 협의를 통한 절차로는 절대로 5·18 관련법을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미 여야 4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민중 페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 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국정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니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정당 간 협상의 거래물, 정치적 타협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살의 역사를 왜곡·모독한 이들을 제명하고 처벌하는 일 역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각 정당은 페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경식 5·18 역사 왜곡 처벌 전남시국회의 상임공동 대표는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권은 5·18을 모욕한 의원 퇴출과 처벌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 국민 요구를 무시할 경우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총칼에 주먹밥을 나누며 투쟁했던 광주를 재현했다. 최남규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때, 자발적으로 응진 민력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지 않으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